

에볼라 확산의 경제적 영향 및 향후 전망

장종문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jmjang@kiep.go.kr, Tel: 3460-1225)

차 례 ● ● ●

1.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배경 및 동향
2. 경제적 영향
3.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 ●

- ▶ 2014년 2월(2014. 2. 9.) 서아프리카 기니 남부 산림 지대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를 거쳐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와 비(非)아프리카 일부 국가에까지 확산되고 있어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음.
 -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2014. 10. 10. 기준) 서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8,396건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고, 이 중 4,032명이 사망하였음.
 - 최근 관심은 위 바이러스가 나이지리아를 넘어 여타 대륙까지 확산되느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미 서아프리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상황에 따라 세계경제에도 큰 충격을 남길 수 있는 사안임.
- ▶ 서아프리카 경제는 이미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서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던 지역이었으나 이미 에볼라 확산에 따른 교역, 노동공급, 해외 직접투자 유입액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음.
 - 향후 나이지리아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 이 사태는 아프리카 전체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음.
- ▶ 아직 세계경제 차원의 충격은 미미한 상황이나 향후 미국과 유럽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 경제가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전 세계적인 확산 가능성도 과거 유행했던 사스나 신종 플루에 비해서 낮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만 현재 미국과 스페인에서 보고된 감염자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될 경우, 과거 사스의 확산 사례와 같이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 위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나 비(非)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수개월간 위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대아프리카 관련 경제협력 사업들은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1.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배경 및 동향

-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는 2014년 2월 초 서아프리카 기니 남부 산림지대에서 시작되었고,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을 넘어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까지 확산되고 있음.¹⁾
-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2014. 10. 10. 기준) 서아프리카 지역의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에서 총 8,396건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보고되었고 이 중 4,032명이 사망하였음.

표 1.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 현황

| | | 확인 건수 | 추정 건수 | 의심 건수 | 총계 |
|-------|--------------|-------|-------|-------|--------------|
| 기니 | 발생 건수 | 1,097 | 180 | 73 | 1,350 |
| | 사망자 수 | 598 | 180 | 0 | 778 |
| 라이베리아 | 발생 건수 | 943 | 1,874 | 1,259 | 4,076 |
| | 사망자 수 | 1,072 | 725 | 519 | 2,316 |
| 나이지리아 | 발생 건수 | 19 | 1 | 0 | 20 |
| | 사망자 수 | 7 | 1 | 0 | 8 |
| 시에라리온 | 발생 건수 | 2,593 | 37 | 320 | 2,950 |
| | 사망자 수 | 753 | 142 | 35 | 930 |
| 총계 | 발생 건수 | | | | 8,396 |
| | 사망자 수 | | | | 4,032 |

자료: WHO(2014. 10. 10.), "Ebola response roadmap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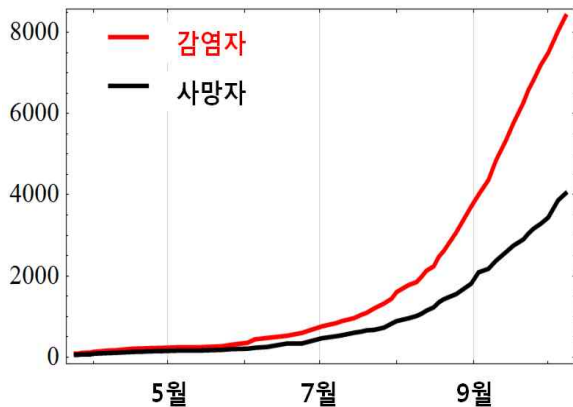
- 에볼라 바이러스의 최근 확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2월 기니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수도인 코나크리를 거쳐 주변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망자를 냈었고, 5월까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다 6월 이후 재확산되고 있음.
 - 2014년 6월 들어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에볼라 관련 소식이 아프리카 지역 차원에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9월 들어 일일 발생 건수가 150명에 육박하는 등 사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
 - 현재 상황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과거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다른 대륙으로의 전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²⁾
- 서아프리카 지역에 유행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와는 별개로 최근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새로운 아형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환자가 확인되었음.
 - 펠릭스 카방게 늬비 콩고민주공화국 보건장관은 8월 24일 제라 지방과 에쿠아퇴르 주의 보엔데 지역에서 발생한 괴질 사망자를 조사한 결과 2명의 에볼라 사망자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음.

1) 본격적인 에볼라의 확산은 올 2월로 추정되지만,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조사결과를 2013년 12월 기니 국경마을 구에케도우(Gueckedou)에서 사망한 2살짜리 남자아이를 이번 사태의 최초 감염자로 보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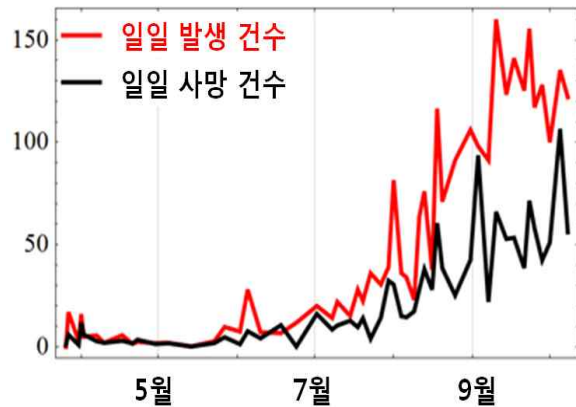
2) 세네갈 보건당국은 8월 29일 에볼라 출혈열 감염환자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BBC NEWS(2014. 8. 9.), "Ebola outbreak: Senegal confirms first case").

- 하지만 현재까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나타난 에볼라 바이러스는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하고 있는 자이르형과는 다른 아형의 변종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어 서아프리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그림 1. 서아프리카 에볼라 누적 감염자 및 사망자 그림 2. 서아프리카 에볼라 일일 감염자 및 사망자



자료: WHO 통계를 참고하여 재구성
(<http://www.afro.who.int>, 접속일: 2014. 10. 10.).



자료: WHO 통계를 참고하여 재구성
(<http://www.afro.who.int>, 접속일: 2014. 10. 10.).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8월 8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 (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2009년 신종 플루와 2014년 소아마비 확산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임.³⁾
- 에볼라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신종 플루(Influenza A virus subtype H1N1)에 비해 전염성은 약 하나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높고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이 없는 상태임.

■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발병한 이래 지금까지 1,500여 명의 생명을 빼앗은 바이러스로, 서아프리카에서 확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음.

- 1994년 코트디부아르에서 침팬지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된 사례가 있으나 해당 사례는 2차 전염 없이 회복되어 확산 사례에 포함되지 않음.
- 1994년 코트디부아르의 동물원 내 침팬지와 이를 부검한 과학자의 감염 사례가 존재하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고, 감염된 환자는 스위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완쾌된 바 있음.

3) 2014년 5월 발표된 PHEIC는 국제 소아마비 근절 캠페인(GPEI: Global Polio Eradication Initiative)의 촉진을 위해 발표되었음.

그림 3.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동향(1979~현재)



자료: Zach Orecchio(2014)⁴⁾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서아프리카 3국의 주요 감염지역



주: 색깔에 따라 신규감염지역, 감염지역, 비감염지역으로 구분.

자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http://www.cdc.gov/vhf/ebola/resources/distribution-map-guinea-a-outbreak.html>(접속일: 2014.10.14.).

- 역사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0년대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나타난 후 동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되다 최근 서아프리카까지 확산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음.

■ 이번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원인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부족이 거론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질병관리 시스템의 미비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수차례 에볼라로 고통을 겪었던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과 달리 이번 바이러스가 확산된 서아프리카 지역은 에볼라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였음.
-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나 침팬지 등이 유력한 감염원(전파종)이자 중간 숙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되나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박쥐를 섭취하거나 사망자의 시체를 만지는 장례의식 등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음.
- 서아프리카 발생지역 일부 주민들은 에볼라에 대한 정보 부족과 감염자를 격리조치하는 것에 반발하여 병원시설이나 의료진을 공격하기도 하였음(로이터, 2014. 8. 5.).
- 최근 현지 정부를 중심으로 군부대 파견, 언론홍보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부 기관의 도움 없이 각국 정부 차원에서 사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4) Zach Orecchio(2014), *Distribution of Ebola Virus Outbreaks 1979-2008*, University of South Florida Geography Dep.

■ 최근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나타난 일부 감염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임.

- 2014년 9월 말 처음으로 확인된 미국의 감염 환자는 10월 8일 사망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추가적인 감염이 확인되어 총 2건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확진사례가 존재
-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에 후송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병원 간호사가 에볼라 감염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고, 현재 환자와 접촉한 다수의 인원이 격리되어 있음.

2. 경제적 영향

가. 공급 측면

■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은 다른 전염병의 확산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의 공급과 수요 측면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됨.

-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전염병 확산에 따른 노동의 감소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생산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됨.
- 노동 공급의 감소는 전염병 감염에 의한 사망과 치료 등에 의한 노동 중단보다 감염의 공포에 따른 노동 중단이 경험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함.
-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을 해외직접투자나 원조에 의존하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국경 폐쇄 및 현지 진출 기업의 철수에 따른 자본 공급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

■ 에볼라 바이러스는 다른 전염병에 비해 감염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노동 중단의 파급효과는 과거 유행했던 전염병 사례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률은 20세기 초 유행하여 약 10억 명의 감염자를 야기한 스페인 독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나,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이 부재하고 치사율이 높아 감염의 공포에 따른 노동 중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평가됨.
-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아프리카 발병국 정부는 감염자를 격리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나타난 지역 자체를 격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 중단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실제로 라이베리아에서는 2014년 8월 말 발병 지역의 격리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의 소요사태가 있었고, 그 외의 발병 국가들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휴교령,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의 강제 휴가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음.

■ 현지 진출 기업의 철수 및 해외 투자 감소세 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AP 통신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현지 인력의 철수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인프라 건설계획의 취소도 가시화되고 있음.
- 미국의 캐터필러(중장비업체)는 현지 인력의 철수를 결정하였고,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 등 다수의 항공사들은 대상국가의 취항을 중단한 바 있으며, 세계 최대 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은 2014년 8월 이미 진행 중이던 라이베리아 인프라 건설계획의 중단 및 인력 철수를 발표
- 기니 등 대상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이미 추가폭락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현지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임.⁵⁾

나. 수요 측면

■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은 수요 측면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ing)에 의한 국내외 수요 감소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사회적 거리는 감염을 피하고자 하는 자발적 거리와 국경 폐쇄 등과 같은 타의에 의한 거리 등으로 구분되나 아프리카와 같이 해외 투자 및 원조에 의지하는 경제는 국경 폐쇄와 같은 타의에 의한 거리 문제가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국경 폐쇄 및 여행 제한조치, 민간 항공사들의 항로 폐쇄 등은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WHO의 국경 폐쇄조치에 대한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국 전파를 막기 위해 여행 제한, 국경 폐쇄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⁶⁾

- 비(非)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낮은 수준의 여행 제한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소재국 중 일부 국가의 경우 국경 폐쇄 등의 강경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
- 가장 빠르게 국경 폐쇄를 발표하였다가 2014년 5월 재개방한 세네갈은 8월 21일(현지시각) 다시 기니는 물론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와의 영공과 해상을 포함한 모든 국경을 폐쇄하였으며, 차드 역시 나이지리아와의 국경을 폐쇄하였고, 남아공 역시 감염국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여행 제한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 카메룬 역시 2014년 8월 나이지리아 국경에 대한 전면 폐쇄조치를 발표하여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5)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현지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글로벌 광산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런던 마이닝과 아프리카 미네랄 등의 주가는 연초대비 60% 이상 하락하였으며, 브라질 철광석업체 발레(Vale)와 이스라엘의 BSG리소스 등은 이번 사태로 기니의 생산시설을 모두 폐쇄한 바 있음.

6) WHO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염 특성상 대상지역에 대한 통제보다는 감염자 격리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고, 무분별한 국경 폐쇄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그 외 적도기니, 케냐 등이 감염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지, 항로 폐쇄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음.
- 주변국의 대응과 별개로 시에라리온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국 폐쇄령을 발표한 바 있음.
- 시에라리온은 2014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폐쇄령을 발표하고 의료진과 경찰 등을 제외한 국민 600만 명의 실외 출입을 금지하였음.

다. 경제적 손실

- 이번 사태 이전 서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나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 지역 경제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음.
- 서아프리카 경제는 2014년 초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으로부터 아프리카 권역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음(표 2 참고).

표 2. 서아프리카 에볼라 확산 국가의 경제성장률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IMF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 5.5 | 4.9 | 4.9 | 5.4 | 5.5 |
| | 기니 | 3.9 | 3.8 | 2.5 | 4.5 | 5.0 |
| | 라이베리아 | 7.9 | 8.3 | 8.0 | 7.0 | 8.7 |
| | 시에라리온 | 6.0 | 15.2 | 16.3 | 13.9 | 10.8 |
| | 나이지리아 | 8.2 | 8.0 | 5.0 | 7.5 | 7.5 |
| World Bank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 4.6 | 3.5 | 4.7 | 5.3 | 5.4 |
| | 기니 | 4.3 | 3.9 | 4.0 | 4.5 | 5.0 |
| | 라이베리아 | - | - | - | - | - |
| | 시에라리온 | 6.0 | 15.2 | 17.0 | 14.1 | 12.1 |
| | 나이지리아 | 7.4 | 6.6 | 6.7 | 6.7 | 6.8 |
| AfDB | 아프리카 평균(북아프리카 포함) | 3.6 | 6.4 | 3.9 | 4.8 | 5.7 |
| | 북아프리카 | 0.3 | 9.4 | 1.9 | 3.1 | 5.5 |
| | 남아프리카 | 3.9 | 3.3 | 3.0 | 4.0 | 4.4 |
| | 동아프리카 | 6.3 | 3.9 | 6.2 | 6.0 | 6.2 |
| | 서아프리카 | 6.9 | 6.9 | 6.7 | 7.2 | 7.1 |

자료: IMF(2014), *World Economic Outlook*; World Bank(2014), *Global Economic Prospects*; AfDB(2014), *African Economic Outlook*.

- 서아프리카 지역은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지역이었으나, 향후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최근 보코하람의 테러 문제와 더불어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고, 2012년 이후 다이아몬드 개발붐으로 인해 15%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지속해온 시에라리온의 경우는 해외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위 지역 경제 위기의 가능성은 대상 국가들의 국제시장 동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최근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주요 피해국들은 에볼라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1년 이하의 단기 국채를 발행하고 있음.

표 3. 서아프리카 3국의 단기국채 발행 내용

| 국가 | 발행일 | 종류 | 이자율 |
|-------|------------|--------|-------|
| 기니 | 2014.8.13. | 1년 만기 | 10.8% |
| 시에라리온 | 2014.7.31. | 1년 만기 | 6.64% |
| 라이베리아 | 2014.6.3. | 3개월 만기 | 3.9% |

자료: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 참고(<http://www.bcr-guinee.org>, <http://www.cbl.org.lr>, <http://www.bsl.gov.sl>, 접속일: 2014. 9. 20.).

- 미국에서 발행하는 단기 국채(재정증권; Treasury Bill)의 경우 부도 위험이 극히 낮은 무위험 채권으로 분류되나 아프리카 지역은 중기 또는 장기 국채의 발행이 어려운 국가에서 발행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현재 대상 국가들의 단기 국채 발행 사례는 심각한 재정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상기 동향을 고려하여 이미 세계은행은 이번에 에볼라 사태의 진원지인 기니의 2014년 경제성장률을 45%에서 35%로 하향 조정하고,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국가에 대한 2억 달러의 긴급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세계은행은 2014년 8월 성명서를 통해 지원금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위험지역으로 선포된 서아프리카 3개국의 공중의료체계 개선과 전염병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해결하는 데 쓰인다고 밝힌 바 있음(세계은행 2014).⁷⁾
- IMF의 경우 아직 별도의 전망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서아프리카 상반기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Financial Times* 2014. 7. 29.).

■ 세계은행은 최근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의 경제적 손실을 주요 발생 국가를 중심으로 2015년까지 약 9,700만 달러에서 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발표하였음.

- 세계은행의 경제적 손실 추정은 에볼라 확산이 2014년 말까지 통제되는 낙관적인 상황과 2015년까지 확산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각각의 손실을 추정하였음.
- 현재까지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은 비관적 시나리오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여타 대륙으로의 확산 여부에 따라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넘어서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임.

7) 세계은행 보도자료(2014. 8. 4.), "Ebola: World Bank Group Mobilizes Emergency Funding to Fight Epidemic in West Africa."

표 4. 서아프리카 3국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손실

(단위: 백만 달러)

| 추정기관 | 대상국가 | 단기충격(2014) | 중기충격(~2015년까지) | |
|------|-------|------------|----------------|----------|
| | | | 낙관적 시나리오 | 비관적 시나리오 |
| 세계은행 | 기니 | 130 | 0 | 142 |
| | 라이베리아 | 66 | 82 | 228 |
| | 시에라리온 | 163 | 59 | 439 |
| | 합계 | 359 | 97 | 809 |

자료: World Bank(2014. 9. 17.), *Ebola: Economic Impact Already Serious; Could Be "Catastrophic" Without Swift Response.*

-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된다면 그 피해액은 과거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와 신종 플루(Influenza A virus subtype H1N1)의 사례처럼 세계경제에 강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음.
-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감염자 수, 감염지역, 유행기간 등)와 대중이 인지하는 공포심의 정도에 따라 좌우됨.
- 2002년에서 2003년까지 홍콩을 중심으로 확산된 사스와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 플루의 사례는 21세기 들어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준 전염병 확산 사례라 할 수 있음.

표 5. 21세기 주요 전염병의 확산 현황

| | 확산 국가수 | 유행 시기 | 감염자 수 | 사망자 수 | 사망자 비율(%) |
|------|--------|-----------|------------|--------|-----------|
| 사스 | 32개국 | 2002~2003 | 8,273 | 775 | 9.3 |
| 신종플루 | 129개국 | 2009 | 25,584,595 | 14,378 | 0.056 |
| 에볼라 | 4개국 | 2014~ | 8,396 | 4,032 | 48.0 |

자료: WHO(<http://www.who.int/en/>) 홈페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재구성.

-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는 앞서 유행했던 사스와 신종 플루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나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한 피해 정도는 사스 유행 당시의 사망자 수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임.
- 특히 에볼라의 경우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보다 통제가 쉽다는 이유에서 발생 국가에 대한 강도 높은 국경 폐쇄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어 감염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음.
-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과 최근 유행한 사스, 신종 플루 등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2002년에서 2003년에 나타난 사스의 사례가 사망자 규모나 확산 범위 측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사례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사스의 경제적 영향은 추정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추정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에 약 10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 수준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었고, 전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은 연구마다 차이는 있으나 약 500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세계경제 차원으로 환산했을 때 약 0.5%의 GDP 감소 효과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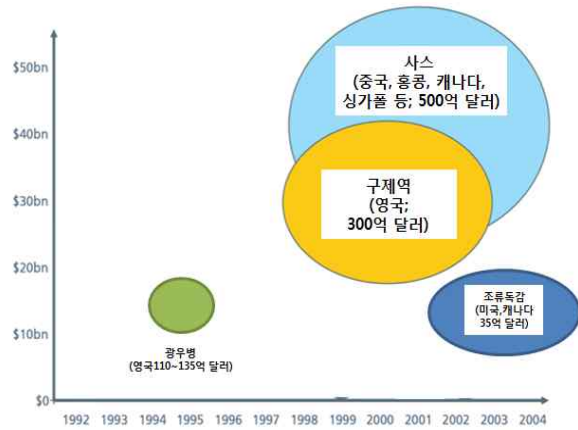
표 6. 사스의 경제적 영향 추정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 ADB |
|-------|-----------------------------|--------|
| 중국 | 2,200 | 6,100 |
| 홍콩 | 1,700 | 4,600 |
| 말레이시아 | 660 | 400 |
| 대만 | 820 | 1,300 |
| 태국 | 490 | 1,900 |
| 베트남 | 111 | 400 |
| 아시아 | 10,700 | 18,000 |

자료: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2004).

그림 5. 주요 전염병의 경제적 충격 비교



자료: Bio Economic Research Associates(2008), SARS and the New Economics of Biosecurity.

- [표 6]에서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ADB는 사스 발병 국가들의 경우 국가별로 0.15%에서 2.63%에 이르는 경제 성장률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함.
- 결과적으로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내에서 통제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세계경제의 성장률 하락 효과는 사스 확산 당시의 효과인 0.5%를 훨씬 하회하는 미미한 상황임.
- 그러나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를 넘어 다른 대륙으로 확산된다면 전 세계적인 교역 침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함.

3. 향후 전망

■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은 이미 아프리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향후 확산 범위와 속도에 따라 장기적인 경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위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아프리카 경제대국인 나이지리아와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나타난 콩고 민주 공화국의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세계은행과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 아프리카 감염국에서만 최소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생산감소 효과를 예상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이번 사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주요 발생 국가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별로 2015년까지 약 9,700만 달러에서 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음.
- 그동안 에볼라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짧고 치사율이 높아서 조기에 소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태는 최소 수개월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확인된 새로운 바이러스의 조기 통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 2015년까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 에볼라 바이러스는 발생 국가는 물론 이들과 교역하는 주변국의 경제도 위축시키는 만큼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환율 불안 및 물가급등 현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이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통제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세계경제 차원의 성장률 감소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임.

-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사스 당시의 경제적 충격을 넘어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 사스 발생 당시에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영향권 내에 있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었음.
-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의 GDP 총계는 2013년 IMF 자료 기준으로 130억 달러에 불과하고, 인구도 2,200만 명 수준에 불과하여 현재의 관심은 경제적인 차원보다는 인도적인 차원과 여타 대륙으로의 확산 여부에 더 집중되어 있음.
- 다만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대륙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야기할 전망이다.
- 특히 이번 사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난 첫 사례이고,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도 존재하지 않아 대중의 공포심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음.
- 결과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비아프리카 지역으로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 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한·아프리카 경제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음.

- 우리 정부는 이미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출장 자제령을 권고하고 있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들도 현지 사업의 축소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대상 지역에 대한 신규 사업은 축소될 전망이다.
- 특히 2014년 예정되어 있는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등 외교적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KIEP